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3월 9일(금)

(음력 1월 22일)

Пятница

9 марта 2018г.

№ 9(11677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3·8절을 축하합니다!



▲ 지난 3일(토)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소망〉아동창작협력회·주한인여성회 공동 주최로 국제 여성의 날 기념 <봄날 기분> 명절행사가 진행되었다. (관련 기사 3면)

(배순신 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에서 여성의 날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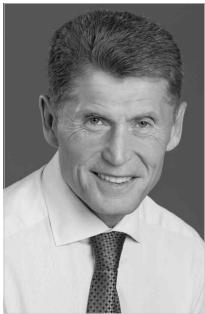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 기념 행사들이 사할린주 내 여러 문화, 교육 등 기관들에서 펼쳐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는 3월 8일 명절프로그램이 12시부터 가가린휴식공원에서 펼쳐졌고 공원의 여러 곳에서는 다양한 공연, 오락, 공예교실 등이 이루어졌다. 시내 문화회관들과 박물관들에서도 여성 명절 휴일 동안 여러 문화교실, 견학프로그램, 공연이 진행되었다. 꽃을 선물로 받는 여성의 명절을 앞두고 <제플리츠니>숍호즈에서는 40 종류의 아름다운 튜립 40만 송이가 재배되어 명절 대목을 기다리는 시장으로 배송되었다.

사할린, 또하나의 신종독감에 117명 걸려

지난 6일(화) 러시아소비자보호감시청(로스포트랩나드소르) 사할린관리국 올라 폰투소와 국장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행성 질환 감염시기 초부터 연구결과 신종독감 바이러스로 사할린에서 확인된 환자수는 117명에 달했다.

지난 주에 독감 발병 25건이 기록되었는데 그중 9명이 어린이다. 이중 10건은 일반 독감이고 14건은 AH3N2로 나타나 자료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벡토르'연구소로 보냈다. 급성호흡기질환 감염 사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주에 5305건의 감염 사실이 기록되었다. 특히 아동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되는 상태로 현재 4개 학교 (노글리키구역 학교 3 곳, 코르사코브구역의 오쵸르스코예 마을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3·8절 국제 여성의 날 기념 축하



친애하는
섬지역 여성
여러분!

국제 여성의
날을 축하
드립니다!

훌륭한 명
절을 맞아
진심으로 드
리는 축하를

받아 주십시오. 여성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름다움과 사랑을 가져다 주며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고 애정어린 손길로 돌봄을 우리는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주위 사람들이 좋은 일과 행위를 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큰 잠재력을 갖고 계시며 사할린주의 사회경제 발전에, 우리 민족의 전통과 가치의 보존에 큰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에 깊은 존경과 감사와 특별한 지원을 받을 만합니다.

연방 및 지역 정부는 여성들의 취업과 사업·예술·스포츠

· 사회생활·어머니로서의 역할 문제에 있어 자아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에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규모 사회적 지원 조치로 건강 강화와 활동적인 생활방식을 위한 모든 기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덕에 사할린과 쿠릴에는 출생률이 증가되고 다자녀 가정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항상 자신이 보 호받고 있음을 실감하고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의 미래에 대한 안정과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기획들이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우리가 큰 노력으로 함께 이룩한 모든 것을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강건함과 행복과 번영을 온 마음으로 기원하며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상호이해와 사랑이 항상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명절을 축하드립니다!

유리 코제마코,
사할린주 지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확고한 의지 확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조성과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3월 5일 오후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한 특사단으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모두 5명으로 구성되었다.

특별사절단의 방북은 평창올림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의 방남에 대한 답방의 의미가 있었다. 이번 방북하는 특사단은 1박2일로 평양에 머물며 김정은 조선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과 북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4시간이 넘게 허심탄화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해졌다. 6일 오후에 서울로 돌아온 특사단의 정의용 수석특사는 북측과 합의한 점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방북 특사단은 평양 노동당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시간 이상을 보내며 문재인 대

통령의 친서와 뜻을 전달하고 남북 간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논의를 통해 북측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남북정상화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한 결과 확인하게 된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다.

첫째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 3차 남북정상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무 협의를 실행하기로 했다.

둘째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남북직통전화선을 설치하기로 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셋째 북측은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넷째 북측은 비핵화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화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의를 표명했다.

다섯째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백히 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기 않기로 약속했다. 끝으로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에 초청했다. 정부는 이번 대북특사단의 방북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환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앞으로 북한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서훈 국정원장과 이번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며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표명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의 날이 다가오자 본사에는 3·8절 기획 기사의 주인공 찾기에 나섰다. 한 인터뷰는 개인사정으로 취소되고 또 한 분은 거절했다. 드디어 본사 이예식 사진 기자님이 시행정부 사이트에서 뽑은 명단 중 한 분과 지난 토요일 아침에 만나기로 했다.

김복순(러시아명 빅토리아 드미트리예나)씨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5청소년음악학교 피아노 교사다. 필자는 수업 전 아침 9시에 음악학교를 찾았다. 사실 아는 것은 음악학교 교사이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 표창장 수여자란 것뿐이었다.

필자를 반갑게 마중한 젊은 여자가분 가장 먼저 "왜, 어떻게 저를 취재하게 되는가?"라고 물어보았다. 시청 사이트를 통해 찾았다고 나는 설명했다.

그녀는 1968년생, 올 가을에 50세가 된다고 하여 필자는 놀랐다. 젊어 보였기 때문이다.

음악교사로 활동 곧 30주년

김복순 교사는 물론 어릴 적부터 음악을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학교 4학년 때 처음 유즈노사할린스크 피오네르 학생회관에 있는 음악합창스튜디오로 데려가 방과 후 수업을 시켰다고 한다. 그 당시에 김 교사는 부모님과 우글레고르스크 구역 우다르니 마을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했다.

음악을 전공하는 데는 여러 동기가 있었다 한다. 첫째는 김복순 씨의 아버님이 음악을 전공하길 바랐고 또 하나는 김복순 씨의 음악 선생님이 음악을 전공하길 권했기 때문이다. 김복순 씨 자신도 미래에 교직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음악선생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했다고 한다.

10년제를 졸업한 후 복순 씨는 사할린 음악전문학교에 입학하여 피아노 전공을 선택했다.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제3 아동음악학교에서 피아노교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 학교는 규모도 작고 위치 문제가 있어서 몇년 전에는 제2음악학교와 제3음악학교가 통합되어 제5음악학교로 탄생되었다고 김복순 교사가 설명했다.

그가 음악교사로 활동한 지 곧 29년이다. 내년이면 30년이 된다...

그동안 많은 제자들도 배출했지만 한편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7년을 공부하고 졸업하는데 때로는 교사의 지도 없이 어디 나가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5음악학교 김복순 피아노교사



원하셨는지 지금에야 이해가 갑니다'라고 했거든요. 연주실력이 마음과 통하여 학생이 이걸 깨닫고 연주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서야 정말 자신을 표현하는 음악이 나오고 창조가 되는 거지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 학생들의 이야기를 하는 김복순 교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번졌다.

공연을 하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혼자 직접 제대로 자기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해요. 많이 노력하고, 배우고도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제자 중에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학교를 졸업하고도 음악을 계속하는 사람을 볼 때 복순 씨는 기쁘다고 한다.

"기대도 하지 않았던 학생 하나가 노래를 작곡하기도 하고 또 한 학생은 부모님이 하얀 그랜드 피아노를 사주셨는데 사실, 그 학생은 별다른 피아노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노력의 결과라 할지, 매일매일 어렵게 노력한 결과 졸업시험에서 5점을 받아 저를 감동시켰지요. 졸업작품을 연주할 때는 그 학생의 마음도 담겨지고 기술적으로도 잘 해냈습니다. 게다가 이 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오른쪽 팔까지 부러져 왼손으로만 한 달 동안 연습을 했었거든요. 현재 이 젊은이는 사마라로 이사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가 되었는데 지금도 음악을 잊지 않고 이 하얀 그랜드 피아노를 즐긴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몸이 약해 체력적으로 일반학교와 음악학교를 동시에 다니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음악학교를 그만둔지 1년이 지나 그 여학생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딸이 계속 음악을 하고 싶어 한다며 피아노 개인 교수를 요청했었어요. 반년이 지나 뭔가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학생이 '선생님, 선생님이 뭘

때로는 학생이 진심을 담아 완벽하게 작품을 연주했을 때 선생 외에 누구도 그 순간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김복순 교사로서는 안타깝다고 한다.

김 교사의 부모는 교사 출신이었다. 두 분은 우다르노예학교 선생이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오면서 어머니는 계속 교편을 잡았고 아버지는 다른 일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알고 본즉 김 교사의 모친은 사할린한인 사회계에서 잘 알려진 신숙자 선생(현 제9학교 교장, 그분이 이 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한국어 수업이 시작. - 기자주)이었다.

역사를 좋아하는 김 교사는 한때 '어머니처럼 역사선생이 될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꿈도 이루어 통신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사범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해 역사교사 자격 졸업장을 따내기도 했다.

교직은 김 교사의 천직인 것 같다. 그녀는 요구가 많은 선생이다. 잘못된 것은 계속 반복해 가르치며 언제나 수업준비를 꼼꼼히 한다. 이래야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음악교사 외에 학교 앙상블의 피아노 악장으로 많은 활동을 하며 많은 음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습을 겸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수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동료들 중에서도 존경을 받고 전문가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의

많은 감사장과 표창장이 증명한다. 최근 2년간 수상 중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 표창장, 사할린주문화부 감사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회 표창장 등이다.

그녀가 전문가로서 성장한 것은 30년간의 경험과 노력이 증명하고 있다.

"가족은 저에게 전부입니다."

김복순 교사는 26세 결혼했다. 80-90년대 당시는 사할린한인 중에는 주로 18-22세 시집 갔으니 결혼이 늦은 편이었다. 연애 결혼은 아니었다. 중매보다는 부모들 간에 소개로 젊은이들끼리 알아서 결정했다고 한다.

서로 마음도 맞고 무엇보다 서로 간 이해가 있고 서로 존경스럽고 애정도 생겼다고 한다.

그 당시 김 교사의 부군인 올레그는 배를 타는 전기기술전문 선원이었다고 했다. 김 교사는 "배우는 자는 항상 자신의 발전을 생각하고 성장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한다."고 했다. 그녀의 남편이 그렇다. 하바롭스크전기기술전문학교 출신인 그는 통신으로 고등내무학교(대학)을 졸업했고 주내무관리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다 대령까지 승진했다.

부부 사이에는 아들 둘이 생겼는데 현재 이들은 하바롭스크 대학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맏아들은 졸업을 앞둔 4학년생이고 둘째는 2학년이다.

"저에게 가족은 전부입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아이들과 남편을 좋아할 지 정말 몰랐습니다. 바로 어제 제가 남편에게 '당신이 남편이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배신을 하지 않았고 서로를 지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시켜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해요.'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필자는 직업에서도 재미를 누리고 가정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김복순 교사와 같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모저모

2017년 사할린주에서 결혼 4016건과 이혼 2732건 공식 등록

사할린주 신분등록사무소 지도부회의에서 결혼, 이혼, 출생률에 대한 역학 통계가 발표되었다. 회의는 안톤 자이체브 주정부 부수상이 주재했다.

"2017년에는 결혼 4016건, 이혼 2732건이 공식 등록되었고 이혼률은 2016년에 비해 2.2% 감소했다."고 신분등록사무소 스웨틀라나 고워로와 소장이 지적했다.

신분등록사무소의 전문가들은 이혼 예방과 가정의 가치에 대한 홍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모임들을 조성하고 젊은이들과 주제별 만남도 진행하고 있다. 12개월간 신분등록사무소들에서는 가족 기념일을 맞아 593쌍의 부부들에게 축하해 주었다.

또한 심리학자들을 유치하여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를 돕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행복의 주소는 가족> 심리학자들의 클럽은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네웰스크와 노글리키에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가정의 권위를 높이고 전통가족의 가치를 강화하는 것은 사할린주 정부의 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다. 가

능한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자이체브 부수상은 강조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작년 사할린주에서 신생아 6362명, 그중 쌍둥이 82명, 세 쌍둥이의 출생 등록이 보고되었다. 18세 이하의 어린 산모들에게서는 156명의 신생아들이 출생했다고 주정부 홍보실은 전했다.

В 2017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4016 браков и развода

Динамика по заключенным и расторгнутым бракам, рождаемости представлена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ллегии агентства ЗАГ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ё прове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 В 2017 году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4016 актовых записи о заключении браков, разводов — 2732. Расторгнуто на 2,2 процента браков меньше, чем в 16-м году, — обратила внимание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ЗАГС Светлана Говорова.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в своей работе специалисты агентства уделяют профилактике разводов и пропаганде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Регулярно организуются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одятся тематические встречи с молодежью. За 12 месяцев с юбилеями семейной жизни в отделах ЗАГС поздравили 593 пары.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парам, стоящим на грани развода привлекаются психологи. В Долинске, Корсакове, Невельске и Ногликах поддержку оказывают в клубах "Адрес счастья — семья".

— Повышение авторитета семьи и укрепление традиционных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 один из приоритет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обходимо продолжать эту работу, охватывая,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людей, — подчеркнул Антон Зайцев.

На коллегии также отмечено, ч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6362 новорожденных, среди них 82 двойни и одна тройня. У молодых мам в возрасте до 18 лет родилось 156 малыше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사할린 연금자들에게 2017년에 365억 루블리 지급

러시아연방 연금기금 사할린주 지부는 2017년에 연금과 보조금으로 약 365억 루블리를 지급했다.

1년 전에는 약 340억 루블리가 지급되었으며 연금은 제때에 정해진 액수가 지불되었다.

의무 연금 보호체계의 지출은 모든 종류의 연금을 지급하는 데로 쓰인다. 이 비용의 3분의 2는 근로자 보험 분할 납부로 보험료가 보장되고, 3분의 1일은 연방예산에서 충당한다.

Сахалинским пенсионерам в 2017 году выплатили около 36,5 млрд рублей

Отделение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РФ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7 году выплатило пенсий и пособий почти на 36,5 млрд рублей.

(8면에 계속)

<봄 기분>을 안겨준 여성의 날 기념 행사

지난 3일(토)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 <소망>아동창작협력회 · 주한인여성회 공동 주최, 주한인회 협조로 국제 여성의 날 기념 <봄날 기분> 명절행사가 진행되었다.

전날 하루종일 눈보라가 치는 바람에 개최자들이 오지 못할 거라는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주최 측은 100-150명으로 예상했으나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준비된 생화가 모자랄 정도였다.

공연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소망>아동창작협력회 김준경 회장이 준비하고 실행했다.

사회는 신한인회를 대표해 김종길 운영위원,

여성회를 대표해 김상순 씨가 보았고 행사 후원(특히 다과회 준비)으로는 사할린주두마 최 유리 의원,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회 이고리 로귀노브 의원 · 장 양게니 의원이 찬조했다.

축사를 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림종환 회장은 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한인동포단체 사업에 관심을 갖고 단체 활동에 참가하게 된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모든 여성분들이 꽃처럼 피어나길 바라며 행복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고리 로귀노브 시의원도 여성들에게 아름다운 기원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 로귀노브 의원은 70주년을 맞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림종환 회장에게 시두마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한 여성분들 모두에게 주최 측이 준비한 꽃을 한송이씩 선사하여 기쁨을 더했다.

공연 프로그램은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과 무용단들의 소고춤과 바라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소속 <세종>한글학교 유아교실 유아들의 동타령을 비롯해 동요와 율동, 양 세르게이 사할린 시인의 시 감상,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의 춤과 <무궁화>그룹의 국민체조, <무궁화>중창단의 노래, 이복순 어르신들의 <백양나무> 독창, 강팔용, 박영식 동포가수와 강상옥, 박위석 부부의 듀엣 <당신뿐이야>등의 노래들로 공연은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모든 공연은 봄 명절의 기분을 한껏 돋우었다. 특히 이와 같은 행사를 처음 찾아온 일반인들도 대단히 만족해 하며 공연을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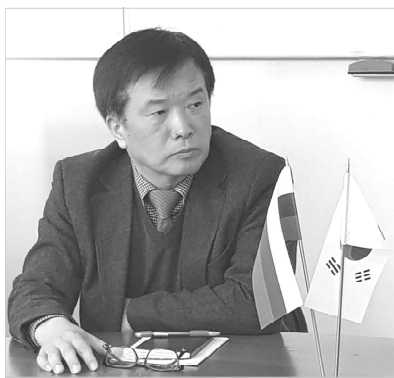
공연의 흥은 다과회와 참석자들의 즐거운 춤판으로 이어졌다.

(취재: 배순신 기자)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에 서서

사할린으로 오는 길은 쉽지 않았다. 현지 공항에 도착 50m의 강풍이 분다면서 인천 공항



에서 비행기가 뜨지 않았다. 그렇게 공항의 자에서 다섯 시간을 버티며 내린 유지노 사할린스크는 살을 찢는 고통을 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모두 12명이다. 방문단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시아중앙아시아 학부에서 러시아어, 문학, 역사, 러시아 경제 등을 공부하는 저학년 학생 10명과 함께 교수 2명으로 되어있다. 사할린 역사문화 탐방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인문학 육성사업(CORE)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는데, 우리 팀은 부산외대 코어사무국이 공모한 '2017학년도 2학기 겨울방학 학부 지원행사'에 선정되어 여기로 온 것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가 아니고, 하필이면 사할린이냐고? 태풍의 중심은 고요하다. 그러나 태풍 바깥엔 엄청난 바람이 불고 요란하다. 역사나 정신도, 민중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사할린 행을 결심한 것은 "변방에 서야 중심이 잘 보인다"고 믿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곳은 러시아, 일본, 한반도 세 나라의 역사가 수없이 충돌하고, 위대한 작가 체호브의 문학 유산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런 섬이지 않은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사할린의 역사, 이곳에서의 민중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이곳 '외곽'에서 잘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책이나 다른 사람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 아닌,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사할린 한인의 비극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싶었다. 나는 이런 계획 아래에 겨울 방학 중에 학생들을 학교로 두 차례 소집하여 PT 자료를 준비시켰다. 학생들은 사할린과 소련의 역사, 체호브의 문학, 사할린 한인의 삶,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이들은 자료를 조사하고 1차 발표회를 부산에서 가졌다. 그리고 이곳 사할린에 와서는 사할린 국립대(CaxГУ) 학생들과 같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2차로 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와 증인들을 인터뷰하였다. 두 나라 젊은 학생들의 이런 작업은 작업 자체로서도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또 부산과 사할린의 앞으로의 협력관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종 발표회는 CaxГУ에서 두 나라의 학생과 교수, 언론사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떠나는 날 오전에 가지기로 하였다.

그렇게 나는 풍설 요란한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에 섰다. 10년 전에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유즈노 사할린스크와 홈스크에 잠깐 다녀간 적이 있다. 그때는 이번처럼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 4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바람 부는 그 언덕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고향으로 내려다 줄 배를 기다리며 누비웃 사이로 파고드는 찬 바닷바람을 견디며 맨발로 벌벌 벌벌 뛴고 있었다. 바람은 늑대소리를 내며 울부짖고, 아이들은 등짝에서 칭얼대고, 야속한 배들은 일본인들만 싣고 자꾸 자꾸 떠나간다. 영화 <국제시장>의 흥남 철수 장면을 기억하시는가. 그보다 5년 4개월여 전인 1945년 8월, 이곳 사할린의 최남단 항구인 코르사코브에서 흥남의 비극이 먼저 벌어지고 있었다. 끝내 배를 타지 못한 우리 동포들은 보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며 미쳐갔다고 한다. 많은 숫자가 망향의 한을 끝끝내 삼키지 못하고 정신병원과 길거리에서, 추운 산속에서 생을 마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에조차 누구도 사할린 한인을 염려하거나 돌보지 않았다. 패전국 일

본도, 승전국 소련도, 허리가 두 동강난 남북한도 모두 하나같이 이곳 우리 동포들을 버렸다. 이런 탓에 사할린 한인의 비극은 1945년 전쟁종식과 더불어 끝나지 않고 이중성을 넘어 3중적, 4중적이다. 1991년부터 일본 측과 한국 적십자사의 노력으로 1세대 동포에 한해 고향이주가 겨우 허용되고 있다지만, 살을 찢는 이산의 고통은 대를 넘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나와 우리 학생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로 돌아왔다. 그리고 시내의 한인문화센터 마당에 있는 강제징용 희생자 추념비와 이중징용비 앞에 섰다. 우리는 2개의 비에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고통과 헌신 앞에 깨끗한 보드카 한잔과 국화 다섯 송이를 바친다. 눈발에 두 손을 포개고 이마를 그 위에 얹으며, 각자 두 번씩 절하며 억울한 혼들의 평안을 빈다. 억울하다. 분하고 원통하다. 지배자들과 나라와 강대국들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외면당한 우리의 피와 살들, 그분들의 영령 앞에 죄를 고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속으로 다짐한다.

김주환 교육원장께서 필름을 한편 틀어 주신다. 사할린 <우리말방송>에서 만든 이산가족의 고통을 담은 다큐 영화를 보며 우리 학생들이 운다. 소리 내어 엉엉 운다. 나라고 눈물이 없으랴. 나도 따라서 운다. 한인문화센터 2층에 전시된 '귀환'이라는 이름의 비극적인 사진작품들을 보면서 우리 중 1학년 여학생이 울먹이며 중얼거린다. "나는 며칠 만 엄마를 못 봐도 보고 싶어 죽겠는데, 저분들은 70년 동안 엄마를 못 만났네요!". 그렇다. 그런 비극이다. 이분들은 70년 동안 엄마의 젖 냄새를, 고향의 땅 냄새를 맡아보지 못했고, 지금도 못 맡고 있다. 아니면, 새로운 이산가족이 되어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 여기서 태어난 다 자란 아들은 "꼭 한국에 돌아가서 고향 근처에서 뽀를 묻겠다"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 한다. 남이 찢어놓은 살,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아버지는 자기 손으로 자신의 살을 또 찢어야 한다. 그렇게 가실 순 없다면서, 사진 속에서 아들이 공항 철조망 울타리를 타넘고서 아버지 품에 달려든다.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기에, 도대체 무슨 업보이기에, 사할린 한인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 이렇게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가!

나의 제안은 이렇다.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에 대한민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다 데려가자. 그래서 그 풍설 지독한 언덕에서 역사교육을 다시 시키자. 가능하다면 북한의 어린이들, 학생들도 데려오자. 자기 이익 쟁기기 바쁘고 체면치레도 못하는 기성세대 예전 기대할 게 없다. 일본 신사의 외관을 그대로 닮은 한인문화센터, 세계 10위 권의 경제강국이라고 하면서 일본인이 일본 돈으로 짓고 설계하였다는 그 왜풍의 한인문화센터를 지금까지 안고 사는 게 대한민국 기성세대가 아닌가. 더군다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쇼군'이라는 일본 식당이 한인 문화센터 안에 버젓이 세 들어 살면서 영업을 했다고 한다. 그 앞에 강제징용 추념비가 있다. 매일 저 일본 신사 모양의 외관과 쇼군 간판을 바라보는 강제징용 희생자 분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하였겠는가.

우리는 끝끝내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살고 있을까? 10년 만에 사할린에 와서 두 번째로 며칠간 머물다 가면서,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잘 열어나가며 일류국가 일류민족을 만들어 나가려면 이제는 개인이든 나라든 좀 함부로 살아선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반성과 성찰 안에 미래를 개척하는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먼저 하여야만 할 것을 잘 가리고 우선 나부터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할린 주의 코르사코브 언덕이 내게 그런 점을 이번에 가르쳐 주었다.

이재혁,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모스크바 사할린회 회장으로 김태성 선출

2018.3.3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지역 간 사회단체 '사할린한인회'" (일명, 모스크바주변 지역 사할린동포연합회 MOO "ОСК") 제7기 결산선거회의가 진행되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 대표(회장 김영구)를 비롯, 32명의 대표자들이 참가한 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연합회 활동결과 보고, 신임회장 및 운영위원회 선거 등 의제가 상정되었다.

박 알렉산드르 회장대행이 연합회의 지난해 활동결과를 보고하였고 구순자 심사위원장이 결산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어서 신임회장 선거가 있었다. 거수가결 결과 김태성 씨가 찬성 25, 반대 무, 기권 7표로 모스크바사할린동포연합회 제7기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운영위원회는 7명으로 정하기로 하되 이전 회장들과 신임여성위원장도 운영위 회의에 대한 참가 및 표결권을 갖는다.

모스크바에서 김수만

제7기 모스크바 사할린동포 연합회 신임회장의 약력



유가스탐사대 건설 부문에서 근무하였으며, 1995년 모스크바로 이주, 한국대사관 등 공관과 주러 한국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업에 종사하면서, 2008년에는 한국 미학의료분야 협력업체인 유한회사 "KoRus"를 설립하는 한편 2015년부터는 다목적 "태성그룹"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기혼, 슬하에 2남 1녀와 7손을 두고 있음.

성명: 김태성 (러시아명: 미하일)
생년월일: 1957.7.20일생
출생지: 사할린 포로나이스크 구역 가스텔로 부락
학력 및 경력: 기술전문학교 출신으로서 아나와 '콤소몰레츠'습호즈, 극동 석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ОТЕРЯННАЯ ЗАКОЛКА

Сквозь тучи
проник на землю
луч.

А, вот во что превратилась
серебристая заколка для волос?...

Мама,
помнишь,
мы искали, искали
и не могли найти?

Держу я находку...
Побежать бы к тебе
с криком: "Нашел!"

О, сон - единственное место,
где мы можем встретиться...

Мама,
слышишь,
приснись этой ночью,
приснись...

* * *

ПРИКОСНОВЕНИЕ

Коснусь я дыханьем светлых волос,
пахнущих мыльным запахом детства,
как стебелек - чарующих звезд,
почти несуществующим прикосновением,
мелодией, мерцанием, наитием,
улыбкой, слезами, восхищением,
витающими словно тополиный пух
в разгаре лета,
когда весь мир растревожен
светлым томлением небесной глубины,
и все сущее тянется ввысь
трепетными стебельками.

Роман Хе,
(Из сборника
«Ёнбун, или полёт бабочки»)

Весеннее настроение подарили в преддверии 8 марта

В преддверии женского праздника «Весеннее настроение» подарили сахалинцам МО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бщество содействия дет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Несмотря на разыгравшуюся накануне непогоду (сильную метель), зал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был полон.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люди от 30 до 80-ти и старше,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творчества «Соман» (Надежда) и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и поддержке РООСК. Вечер под таким названием состоялся 3 март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Выступая от имени организатор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Лим Ден Хван (Анатол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отметил, что «Основная идея проведения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к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шей диаспоры людей, не вовлеченных в эту сферу, организация их досуга и общения». Он поздравил всех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 прекрасного пола с наступающим праздником

8 марта, пожелал весеннего настроения и счасть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им Чун Ген (Тамары Васильевны) был подготовлен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танцевальные ансамбли школы «Этнос», певцы Кан Пал Ен и Пак Ен Сик, супружеский дуэт Пак Ви Сок и Кан Сан Ук, хор бабушек «Мугунхва», танцев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Ариран» при ККЦ, малыши из класса дошколят школы «Сэджон» при ЮСМОСК, поэт Сергей Ян. Все номера нашли живой отклик у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Особенно понравилось тем, кто впервые побывал на подоб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Вечер продолжился чаепитием и танцами.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поддержку в организации мероприятия оказали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Юрий Цой, депутат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городской Думы Юрий Логвинов и Евгений Тян.

(Наш кор.)

30 лучших ю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выступят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KYDO и фонда "Давайте вперед!" посетил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 преддверии обмена талантливыми музыкантами,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этом году. Они встретились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остров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никальное соглашение по обмену талантливыми музыкантами, подписанное сахалинским областным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и корейским симфоническим оркестром KYDO, начнет действовать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В мае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иедут 30 музыкантов из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сверстниками из Сахалинского детск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они проведут несколько репетиций. После этого ребята выйдут на сцену, где исполнят узнаваемые композиции известных авторов.

В сентябре состоится ответный визит,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уже 30 лучших сахалин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в содружестве со своими корейскими сверстниками проведут несколько совместных занятий и выступят на сцене в Южной Корее.

— Сейчас рабочими группами из двух стран ведется кропотливая работа по подготовке эт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областного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Елена Манойленко. — С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все должно пройти



без каких-либо шероховатостей. Это будет уникальный опыт для талантливых ребят как из Кореи, так для наших юных музыкантов.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проекту у них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ти, развиваться и повышать уровень своего мастерства.

По мнению росси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ля ребят участие в таких обменах является еще и прекрасным мотиватором, который подталкивает их к тому, чтобы добиваться новых высот, не бросать занятие музыкой, а в перспективе связать с ней свою карьеру, сообщает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ий центр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перелетные люси
ГОСТИНИЦА ГАГАРИН
горнолыжный сезон на Сахалине

супер скидка на проживание
15% для всех лыжников и сноубордистов!!!

с 01/01 по 31/03

скидка действительна только при бронировании по тел.: 8(4242)498-400
И ЧЕРЕЗ E-MAIL: RESEPTION@GAGARINHOTEL.RU

реклам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 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Делегация РК и Ким Чон Ын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стреча членов делег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пецпосланника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лидером Ким Чон Ыном и последующий ужин длились 4 часа 12 минут. Об этом 6 марта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на ужин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ключев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естной власти, среди них супруга Ким Чон Ына Ли Соль Чжу и заместитель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ом пропаганды и агитации ЦК ТПК Ким Ё Чжон, которая являясь сестр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недавно побывала в РК в качестве спецпосланника. Во вторник делегация Юга проведёт переговоры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а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дня вернётся в Сеул.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ока нет никаких комментариев о содержании встречи делегации с Ким Чон Ыном.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спецпосланник президента Чон Ый Ён передал лидеру КНДР письмо Мун Чжэ Ина и призвал выразить позицию по вопросу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сообщает, что в ходе встречи Ким Чон Ын ознакомился с позицией Мун Чжэ Ина по вопросу возмож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проведя достойные переговоры. После этого он отдал распоряжение о скорейшем принятии связанных с этим рабочих мер. Также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стороны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по активизации разностороннего межкорейского обмена и контактов, а также п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мягчения военной напряжё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Жители РК отметили 99-ую годовщину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Жители РК отметили в прошлый четверг 99-ую годовщину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ялись в городах и провинциях, в честь праздника по всей стране были вывешены национальные флаги Тхэгыкки. Основные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шли в Сеуле. В ходе церемонии, состоявшейся у колокольни Посингак в центре столицы, мэр Сеула Пак Вон Сун вручил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награды потомкам шест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о окончании церемонии состоялся концерт традиционной музыки и хорового пения. На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павильон, где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очтить память 33-х жерт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ериода, чьи останки недавно возвращены из Японии. На площади у станции метро «Ангук» прошло костюмированное шествие,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зачитывалась «Декларац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Образован комитет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празднованию в будущем году 100-летия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этот день можно было бесплатно посети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центральный музей РК и друг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музеи.

Приговор Пак Кын Хе будет вынесен 6 апреля

6 апреля суд Центральног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круга Сеула вынесет приговор бывшему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Пак Кын Хе. 27 февраля прокуратура потребовала приговорить подсудимую к 30 годам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и штрафа на сумму 110 млн долларов. Пак Кын Хе предъявлены 18 обвинений,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получение взятки от группы Samsung, принуждение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й к внесению взносов в подконтрольные фонды MIR и K-Sport и другие. Доказан, в частности, факт сговора Пак Кын Хе с её близкой подругой Чхве Сун Силь, которую приговорили к 20 годам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и штрафу на сумму 16 млн 600 тыс. долларов.

В учебники обществознания РК внесли ряд изменений

В учебниках по обществознанию для начальных школ РК впервые за четыре года появилось выражение "полевые бордели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о данным Объединения профсоюзов работников образования, с начала учебного года в учебниках по обществознанию для шестиклассников появились иллюстрации по вопросу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с объяснением о том, что "не только корейки, но и другие женщины из стран японских колоний, принудительно отправлялись в бордели японской армии". Речь идёт о чёрно-белых кадрах 1944 года, на которых запечатлены семь босых женщин, стоящих на земле у кирпичной стены полевого борделя японцев в оккупированном ими Китае. Помимо этого,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в определение во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16 мая 1961 года. В новом учебнике указано, что переворот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и проведен генерал-майором Пак Чон Хи и его товарищами из-за решения тогдаш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 сокращении масштабов армии с целью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Также появились выражения "конституция Юсин" и "авторитарная диктатура". Наряду с этим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было создано 15 августа 1948 года. (RKI)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йдут вместе на открытии Паралимпиады-2018

Вслед за Олимпиадой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решил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единство нации и на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которые стартуют девятого марта. Спортсмены двух стран пройдут совместно под флагом единой Кореи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Паралимпиады. Об этом заявили в Спорткомитете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ы уверены, что спортсмены Юга и Севера совместно пройдут и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Паралимпиады в Пхенчхане 9 марта. Это будет следствием дву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а также реш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ара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 заяви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портивный чиновник. Он добавил, что детали этой процедуры будут обсуждены в ходе двусторонн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которые состоятся седьмого март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это станет первым в истории совместным проходом спортсменов-паралимпийцев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Игр.

Напомним, что в ходе Олимпиады в Пхенчхане,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9 - 25 февраля, две страны неоднократно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корейское единство. Так, на церемониях открытия и закрытия ОИ-2018 спортсмены двух стран шли совместно под флагом единой Кореи, отказавшись от демонстр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флагов. Была также сформирована объединенная женская хоккейная команда, которая сыграла несколько матчей в групповом туре Олимпиады. С трибун спортсменов как Севера, так и Юга поддерживали специально прибывшие в Пхенчхан и Каннун около 300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олельщиц. Во время ОИ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шли гастрол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оркестра, а также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тхэквондистов КНДР. Делегацию сопровождала отдельная группа журналисто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МИ.

Как пояснили в Оргкомитете Паралимпиады, в этих игра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делегации из 49 стран мира. От КНДР будут участвовать два атлета-паралимпийца, которые выступят в беговых лыжах. Южную Корею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ять 36 спортсменов.

Напомним, что от России в Пхенчхан на Паралимпиаду поедут 72 человека, включая 29 спортсменов и пять спортсменов-ведущих, которые будут помогать атлетам с нарушением зрения. Все они буд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играх в нейтральном статус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Корейцы оценили свою Олимпиаду в Пхенчхане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жителей Южной Кореи считают, что прошедшие 9-25 февраля в Пхенчхане зим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были проведены успешно, а самыми интересными соревнованиями названы керлинг. Таковы данные опроса, проведенного 27-28 февраля среди 1008 жителей Южной Кореи.

Главный результат в том, что сами корейцы уверены, что свою "домашнюю Олимпиаду" они провели успешно. Так ответили 84 процента опрошенных. В качестве причин для подобного мнения названо "отсутствие каких-либо серьезных происшествий или аварий", "слаженная работа сотрудников, волонтеров, хорошее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вклад в улучш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ри этом только семь процентов заявили, что ОИ-2018 не были успешными.

Для сравнения отметим, что показатель в 84 процента все же ниже оценки Кубка мира 2002 г. по футболу, когда его успешным назвали 98 процентов жителей Кореи. Но если сравнивать с Азиатскими играми в Инчхоне в 2014 г., когда успешными их посчитали лишь 47 процентов, то показатели Олимпиады очень неплохие.

В отношении спортивных достижений своих спортсменов и итоговой расстановки в общем медальном зачете, 63 процента корейцев

сказали, что результаты оказались "лучше, чем ожидали до Олимпиады", 28 процентов отметили, что медалей завоевали "примерно столько, сколько и ожидали" и лишь шесть процентов посчитали, что результаты были "ниже ожидавшихся".

В общем медальном зачете Южная Корея оказалась на седьмом месте, завоевав рекордное для себя количество в 17 медалей, из которых пять было золотых, восемь серебряных и четыре бронзовых. В качестве "плана-максимума" накануне ОИ ставилось попадание в первую четверку в общем зачете с 20 медалями, включая восемь золотых. Однако, уже тогда многие специалисты говорили, что планы слишком завышены даже с учетом фактора "домашней" Олимпиады.

Среди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ых состязаний достаточно неожиданно у корейцев на первое место вышел керлинг, опередив обычных для Кореи лидеров в виде бега на коньках и шорт-трека. Причиной для популярности керлинга стали сенсационные успехи женской сборной Кореи, которая сумела сокрушить многие ведущие державы в этом виде спорта и лишь в финале усту



пила шведкам. Девушки же из национальной сборной по керлингу теперь пользуют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в Корее.

Ну а самым любимым своим спортсменом для корейцев стал конькобежец Ли Сын Хун, которому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исполнится 30 лет. В масс-старте он завоевал золотую награду, вызвав взрыв ликования в Корее.

Вторым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стал "гений скелетона" и тоже золотой призер ОИ-2018 Юн Сон Бин, не оставивший соперникам ни единого шанса.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 женской сборной Кореи по керлингу Ким Ын Чжон, которая, отметим, такж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ась и иностранным СМ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18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ег Кожемяко: Президент дал сигнал –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в развитии нельзя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оглашении Посл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и дал комментарий по его итогам.

Олег Кожемяко подчеркнул: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России – это одновременно ответ на наиболее важные вопросы, волнующие людей, и руководство к действию для всех нас.

Как с абсолютной точностью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 сегодня наша страна, все мы находимся на важнейшем историческом рубеже. Это время, когда решается то, какой будет Россия, какое будущее ждет наших детей, всех нас. Нужно собраться с силами и сделать рывок в социальном и 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Добиться главного –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людей.

Отмечу, что при федер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плане уже многое сделано. Мы успешно движемся по пути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экономики, при этом особый акцент делаем на социаль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на повышении уровня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тмечу один факт – в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порядка 200 различных мер поддержки,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мы в лидерах среди других российских субъекто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езидент обратил на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фиксируется положительная демографическая динамика. Растет рождаемость и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снижается смертность, сокращается отток населения. Мы должны сохранить эту тенденцию.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уделил поддержке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индексации пенсий, снижению разницы между пенсией и зарплатой, которую человек получал перед выходом на заслуженный отдых. Уже с 1 мая пенсии будут достигать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Это значимый шаг в решении задачи по снижению бедности.

Президент также сказа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альнейших действий по увеличению мест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прежде всего, для детей ясе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Мы должны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родителям, мамам выйти на работу. Этот вопрос уже решается, а с федер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ой процесс, безусловно, пойдет гораздо быстрее. Мы продолжим работу по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об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недрению инновационных методов обучения, ранней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школьников.

Буквально наканун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ыл открыт первый кванториум – детский технопарк, оснащенный самым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По сути, это прорыв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Ребята получают здесь знания о том, как написать компьютерные программы, сконструировать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роботов и другие устройства. И, что самое важное, применяют эти знания на практике. В итоге уже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молодые островитяне станут опыт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инженерами, смогут легко устроиться на работу в компании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внести вклад в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рывок,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которого сказал в своем Послании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ланируем, что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будет открыто не менее 12 кванториумов.

Мы также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ем и вовлекаем островитян в движение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 Skills), которое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молодым специалистам стать еще более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ми на рынке труда. В целом повышаем качеств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азвиваем институт наставничества, принимаем ряд других мер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дготовить компетентные и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на рынке труда кадры.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повышение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в селах,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ов, развивать мобильную медицину. На островах есть большая потребность в детских лечеб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И уже в 2019 году планируем приступить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дет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Еще одно актуаль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Мы реализуем уник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арендных домов, предлагаем ипотеку с очень низкой процентной ставкой. Для отдельных категорий семей она нулевая. Президент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одолжать эту работу. Нам предстоит построить еще много жилья, в том числе в рамках ликвидации ветхих и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обеспечить строительные участк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Президент уделил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опросам создания современ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городов и поселков. Отмечу, что мы этой работой уже занимаемся. В кажд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например, ежегодно благоустраивается не менее 10%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а также въездов в жилые микрорайоны.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был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порядка 1000 дворов. Уверен, что благодаря федер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мы сможем сделать еще больше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Послании была отмечена важность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ддержки фермеров и малых хозяйств. Это одно из ключе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ы уже добились здесь определенных положитель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Увелич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и, которая продается по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Расширились площади тепличных комплексов, увеличилось поголовье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свиней и птицы. У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купать охлажденное мясо, чего не было уже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илети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граничный субъект, поэтому вопросы безопас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имеют для нас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Считаю важным, что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уделил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этой тем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мы готовы дать адекватный ответ на все происки недоброжелателей.

И, конечно, главный сигнал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для всех нас это то, что России нельзя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в своем развитии. Иначе мы рискуем потерять тот огромный потенциал для роста, который накопили за минувшие годы, уступить место более активным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 продвинутым странам. Это непозволительно. Поэтому никакого самоуспокоения и расслабленности – работать будем еще больше, чем раньше. Этого ждет от нас Президент, этого хотят люди».

На Сахалине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крыт первый детский технопарк «Кванториум»

Церемония прошла 1 марта в Институте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разместилась первая площадка технопарка, рассчитанная на 300 учащихся. Началось торжество необычно – вместо разрезания традиционной красной ленты воспитанники учреждения сложили воедино напечатанный на трехмерном принтере пазл из названий кванториумов -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секций. Кванториум – это новый для страны форма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Школьники в возрасте от 11 до 17 лет здесь могут не просто получать знания в сферах технических и естественных наук, но и применять их на практике, делая изобретения и создавая компьютерные программы, конструкции и устройства – от измерительных приборов до роботов и беспилотников. Впоследствии эти ценные навыки помогут ребятам получить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на рынке труда инженерны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Работа в секциях технопарка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велась с начала года. Этого времени сахалинским школьникам хватило, чтобы воплотить в реальность многие идеи. Из классов кванториума, напоминающих научные лаборатории, ученики уже сегодня являют свои разработки. В фойе, к примеру,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роботов, умеющих обходить препятствия и снующие в воздухе крохотные беспилотные летательные аппараты.

Напечатанный на трехмерном принтере сферический робот-анализатор газа – детище 14-летнего Артема Снявского. Лицеист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влекается роботехникой и компьютерной графикой с четвертого класса и уже построил несколько моделей умных машин. Говорит, самой совершенной стала последняя разработка.

- Мой робот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анализа содержания опасных газов в воздухе – угарного и всевозможных горючих. В будущем планирую сильно расширить этот список - задумал сделать модель следу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ную. Управляется электронный помощник человека со смартфона.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он может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газовой и хи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для проверки помещений на безопасность, - отмечает сахалинский школьник, в будущем мечтающий связать свою судьбу с ракетостроением или авиацией, став программистом или инженером.

Схожие жизненные планы и у другого учащегося – шестиклассника Дмитрия Карпачева. Вместе с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ами юный изобретатель сконструировал измерительный прибор, который отслеживает важные для растений параметры - температуру, освещенность и влажность почвы. Применение ему уже сегодня можно найти в тепличном хозяйстве.

Высокие технологии вот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привлекают внимание еще одного воспитанника кванториума - одиннадцатиклассника Александра Блашенко. Недавно он создал компьютерную программу-коммуникатор для школьных учителей с элементами умного дома. При помощи нее педагоги могут не только обмениваться важ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вести базы данных, но и в автоматическом режиме давать звонки.

- Изобретение нового помогает развивать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е мышление, аналитические и логиче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Все эти навыки мне понадобятся в будущей профессии, которая, думаю, будет связана с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 говорит Александр.

Первая площадка технопарка объединила шесть направлений подготовки: «Робоквантум», «IT-квантум», «Промышленный дизайн», «Аэроквантум», «Геоквантум», «Энерджиквантум».

Учащиеся «Робоквантума», например, создают умные машины и программируют их. В «Аэроквантуме» они знакомятся с различными типами авиадвигателей и воздушных винтов, собирают радиомодели и управляют ими. «IT-квантум» нацелен на развитие интереса у школьников к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ю и созданию электронных устройств. А «Геоквантум» открыт для тех, кто хотел бы реализовывать проекты в сфер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циальной среды и окружающего мира.

Задача «Энерджиквантума» - изучать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альтернативной энергетики и принципы создания современ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А вот в секции «Промышленный дизайн» школьники изучат основы графического дизайна, трехмерного моделирования, осваивают навыки создания эскизов и макетирования.

-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навыки и знания при помощи самого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Кванториум» оснащен 3D-принтерами и сканерами, а также высокоточными станками с числовым программ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Здесь можно изготовить любую деталь или устройство, начиная от статуэтки любимого персонажа, заканчивая электронным устройством, - рассказала Наталья Мурашов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подарившая школьникам большой торт. - Все учебные помещения оформлен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овременными стандартами, оснащены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мебелью.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до 2019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детском технопарке появятся еще дв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лощадки, которые разместятся на баз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дет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и гимназии №3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сего ж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ланируют открыть не менее 12 кванториумов – направлений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 естественно-научным и техническим программам, оснащенных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Работать в «Кванториуме» будут педагог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ые отбирались и обучались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московского Фонда новых форм образова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программ.

Сегодня с открытием первого на Сахалине детского технопарка его учащихся и педагогов поздрав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ера Щербина.

- Это знаковое для области событие. Всего лишь год назад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нами задачу по созданию «Кванториума», которая сегодня успешно выполнена, - сказала она. – Детский технопарк создан в ответ н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вызовы современности и будущего.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детей, обучающихся здесь вскоре придут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что крайне важно для эконом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верена, данный центр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танет фундаментом для развития инженерны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которые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ы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 подчеркнула Вера Щерби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роект власти региона реализовал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о стороны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ему уже дала прибывшая на Сахалин руководитель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организации Ольга Курилова. Островных школьников она пригласила посетить этим летом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тский центр «Океан» 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там в программе ранней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и состязания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Джуниор Скиллс.

Сегодня детские технопарки, подобные сахалинскому, создаются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Поручение об этом дано Президентом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Уже к концу 2018 года обучать детей в «Кванториумах» будут в 70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и.

- Сейчас мы формируем целую систему,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поиски и раскрытие молодых талантов. На их поддержке мы должны сосредоточить свое внимание. Все дети талантливы. Задача учителей и родителей в том, чтобы раскрыть этот талант,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 ходе больш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состоявшейся в декабре 2017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ширен перечень и увеличен объём закупаемых вакцин

В этом году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ыделен 141 миллион рублей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вакцин сверх объемов, поступающих в регион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алендаря прививок. Это на 26 миллионов больше, чем в 2017-ом.

Самая обширная группа закупаемых препаратов – вакцины от заболеваний органов дыхани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самый высокий в стране охват населения иммунизацией от пневмококковых инфекций – 21 процент. От гриппа привито 43 процентов жителей (план на 2018 – 45 процентов). Эти меры позволили повлиять на ситуацию с заболеваемостью от бронхолегоч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снижение смертности составило - 49 процентов. Не было зафиксировано ни одного случая летального исхода от гриппа и его осложнений.

В 2018 году в регионе впервые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иммунизация от ещё одного опас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 менингита, для этого закупят 7700 доз вакцин.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рививку сделают жителям региона из групп риска – призывникам, детям младшего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проживающим в очагах заболевания.

- В области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вакцинация девочек от вируса папилломы человек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удастся предотвратить развитие в будущем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частых и опасных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у женщин – рака шейки матки. Иммунизация от эт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в раннем подростковом возрасте во всем мире считается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м средством профилактики, –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 области уделяют и профилактике рот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Страдают от него, прежде всего маленькие дети, они тяжело переносят эту патологию.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ежегодно регистрируются случаи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вспышек будет закуплено 6000 доз вакцин.

Кроме этого, будут приобретены препараты от ветряной оспы, от природно-очаговых инфекций – клещевого энцефалита и тулярем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영주귀국자 소식

사할린 동포, 대구서 따뜻한 정 나눠

대구시,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와 '사할린의 밤' 행사 개최...
사할린 동포 200여 명 참석해 우호 다져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이하 '청년회')와 광복 73주년, 한·러 수교 28주년을 기념하는 사할린 동포 초청 행사를 가졌다.

대구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사할린한인회 임원과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200여 명을 초청,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대구시와 사할린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평양민속예술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할린과 대구 간 교류협력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장 수여, 하태균 청년회장의 감사장 및 방문 기념품 전달, 사할린 동포 어르신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1일에는 대구섬유박물관을 방문,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의 역사와 나아갈 방향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996년 사할린 첫 방문을 계기로, 대구시와 청년회는 2008년부터 매년 사할린을 방문해 '대구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장학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시와 청년회는 오는 8월에도 사할린을 방문해 열한 번째 '대구의 밤' 행사를 함께 개최하며 두 지역 간의 우호를 다질 계획이다.

대구시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오랜 시간 사할린에서 힘든 날들을 겪으신 사할린 동포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장이 되어 민족의 정을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 사회와 동포들의 민족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쿠키뉴스)

다사랑봉사회, '사할린 어르신 孝 음악회' 개최

인천 남동구 논현2동 다사랑봉사회(회장 박원철)는 지난 24일 남동사할린센터에서 사할린 동포어르신을 위한 효(孝)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할린 동포 어르신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장구 및 아코디언 연주 등 봉사자들의 재능기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직접 참가하는 노래자랑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제공됐다.

박원철 회장은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다같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미라 논현2동장은 "논현2동에서는 다사랑봉사회뿐만 아니라 사할린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1단1로 협약 체결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 사랑이 넘치는 논현2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사랑봉사회는 지난 2010년 이견만 고문을 포함한 5명의 봉사자가 지역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현재는 25명의 회원이 요양원과 복지관 등을 방문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회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인천뉴스)

사할린 동포 위문공연 '찾아가는 부산아리랑'

러시아 동포 강제징용80주년기념 사할린 동포위문공연 '찾아가는 부산아리랑'이 3월 1일 부산시 기장 정관 마을에서 열렸다.

(사)동래부산아리랑보존회(회장 김희은)가 주최한 행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이중징용으로 고난을 받은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사할린아리랑을 알리고 부산시 기장에 정착한 영구 귀국 사할린 동포를 부산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또 일제강점기 역사의 노래인 동래아리랑을 시민들과 함께 부르고 매년 삼일절에 부산에서 아리랑을 부르는 것을 정례화하기 위한 뜻도 담겼다.

단체는 행사에서 동래아리랑, 부산아리랑, 사할린아리랑, 독립군아리랑 등을 불렀다. 마지막으로 사할린 동포들과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한민족의 정을 나눴다.

김희은 (사)동래부산아리랑보존회 회장은 "사할린아리랑제를 통해 사할린을 방문했을 때 해외 동포들이 우리말을 잊어버려도 아리랑을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노래 아리랑을 걸머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도 깨달았다"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힘닿는 대로 '찾아가는 부산아리랑'을 통해 아리랑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사할린 동포 2세인 박훈녀 부회장은 행사 후 "타국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시던 부모님들은 고향을 그리워하셨을 것이고, 우리는 어린 나이에 따라 부르면서 우리의 조국은 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리랑의 선율에 감동 받아 말을 이을 수가 없다. 아리랑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우리말로 깨닫다]

한국어 교육은 교육입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어를 모국어가 아닌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학습자가 왜 배울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왜 배울까요? 한국어를 배우면 뭐가 좋을까요? 모든 관점의 시작은 한국어가 교육이라는 점과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 대한 관심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 교육이 교육이라는 이 당연한 명제는 교육 현장에서 수없이 흔들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기관의 발전을 또 다른 목표로 말합니다. 대학에서는 외국 학생을 다양한 이유에서 필요로 합니다. 대학의 국제화라는 가치 목표도 있고, 대학 평가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대학의 재정이라는 걸로 드러내기 싫은 목표도 있지요.

하지만 외국에서 온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다른 모든 목표에 앞서서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는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창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학생을 배우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나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아주 기본적인 시작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현재의 위치까지 발전하게 된 것에는 많은 이들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 발전을 들지 않을 수 없겠네요.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다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면 한국어를 배울 내어서 공부하고 싶었을까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자신의 삶을 빛나게 하지 않는다면 외국에 한국어학과가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한국어가 경제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가 교육이라는 점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유학 보내기 위해서 가족이 고통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족의 미래이자 희망인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쳐주어야 하고, 학생들에게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어 교육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 배경에는 한류도 있습니다. 드라마, K-POP의 인기는 한국어 학습자의 계층을 넓혔습니다. 일본에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한국어 붐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취미로 배운다는 대학생과 일반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아마 국어학자들은 한국어가 외국인의 취미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좋아서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무겁게 한국어가 교육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은 교수법과 교육 자료를 가지고 어떤 언어교육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더 좋은 교육시설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한국어 교육은 한류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한류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배워서 한류가 더 좋아져야 합니다. 문화 한류가 교육 한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국어는 또 다른 '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재외동포나 해외 입양인에게 한국어는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해주는 시작점이자 부모나 친척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함부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외동포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고, 재외동포에게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교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방식의 지원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부할 게 많습니

다.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교육은 생존과 생활 그 자체입니다.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우리 경제의 밑받침이라고 생각하거나 결혼이민자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은 사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우리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국가와 지자체, 사회 각 부분이 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멀리서 온 고마운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국에 돌아가서 한국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와 함께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될 겁니다. 한국어를 정말 잘 가르쳐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학습자가 없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결기와 눈물, 웃음과 희망, 아름다운 미래를 봅니다. 한국어 교육은 교육입니다. 한국어 교육은 교육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2월 1일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 협의회 워크숍이 열립니다. 외국학생을 어떻게 한국 대학으로 오게 하고, 온 학생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도와줄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외국에서 온 학생들의 눈빛을 떠올리는 귀한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Годом ранее эта сумма составляла около 34 млрд рублей. Деньги выплачивались вовремя и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Расходы системы обязательного пенсион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 выплата всех видов пенсий. Эти расходы на две трети обеспечены поступающими от работодателей страховыми взносами, ещё треть - это трансферты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성공하는 엄마>기획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여성들에게 참가 독려

<신분(스타투스): 온라인>자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젊은 어머니들의 지속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성공하는 엄마> 새 프로젝트가 출발했다. 산후 휴직, 육아 휴직으로 앞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하거나 지속하길 지향하는 여성들에게 전문지식과 능력의 확대를 돕고 컴퓨터 기술과 법률 분야에서 유익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도울 계획이다.

교육은 조속히 사회활동을 지속하거나, 시작하려는 계획을 갖거나, 개인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진행하게 된다. 자질 향상은 본격적 수업과정, 통신 과정, 강연, 세미나의 형태로 지역 노동 시장의 요청과 직업에 따라 조직된다.

<성공하는 엄마> 기획 소개는 3월 5일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Женщина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едлагаю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екте "Успешная мама"

В рамках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Статус: Онлайн" стартовал новый проект "Успешная мама",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непреры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олодых мам. Женщинам, находящимся в отпуске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или имеющим малолетних детей, стремящимся продолжить или начать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могут расширить перечен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наний и умений, приобрести полезные компетенции в области компьютер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права. Обучение пройдут женщины,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ют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одолжить или начать трудо-

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а также занятьс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м. Повыш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в формате очных и дистанционных курсов, лекций, семинаров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о по профессиям,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на рынке труда региона.

Презентация проекта "Успешная мама" состоялась 5 марта 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사할린국립대, 법대생들의 법률상담 재개

사할린국립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이 무료법률상담을 재개했다.

대학 측에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미래의 법률가들은 시민들에게 고소장, 법적 청구서, 계약서와 합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들은 가족문제, 주택, 민사 소송, 근로, 토지 문제들에 따른 법적 조치도 상담한다.

법대생들의 무료 상담은 사할린국립대 경제정치법률대학 교수들의 감독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러시아연방 무료법률상담>법령에 따라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료법률상담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쿠릴스카야 거리, 41 (8호실). 기간은 5월 1일까지며 매주 화, 수, 목 16시부터 17시 15분까지 진행된다. 문의 전화 (4242) 288-633.

СахГУ возобновил работу студенческой правовой консультации

Студенты юрид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возобновили работу правовой консультаци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вузе, будущие юристы помогут горожанам составить претензии или исковые заявления, договоры и соглашения. Они подскажут юридические действия по гражданским, трудовым, земельным, жилищным и семейным вопросам.

Консультации студенты ведут под контроле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нститута права, экономики и управления СахГУ. Обратиться за помощью люди могут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 бесплатной юридической помощи в РФ».

Получить бесплат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можно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ица Курильская, 41 (каб. 8) до 1 мая с 16:00 до 17:15 во вторник, среду и четверг.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4242) 288-633.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ПОЗДРАВЛЯЕМ!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оздравляет с праздником 8 марта всех женщин и от всей души благодарит спонсоров Ли Мен Дя, Ли Чун Хи, Де Ок Дю, Де Але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е Те Ги, Ким Су Нок (Корсаков).

사할린주 미술박물관 하이 옥자 총연구실장의 부군 박순길 씨께서 병환으로 인해 2018년 3월 1일 향년 64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음을 부고합니다. 비애에 젖은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할린주한인회
사할린주노인회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사할린주미술박물관 하이 옥자 총연구실장의 부군 박순길 씨의 별세로 비애에 잠긴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한국 안산에 영주귀국하셨던 김익택 씨께서 병환으로 인해 2018년 3월 5일 향년 82세를 일기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별세하셨음을 부고합니다. 비애에 잠긴 유가족께 위로의 뜻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새고려신문사 전 편집·통신사 부장이셨으며 현 <소망>아동창작협회 김춘경 회장의 오라버님이신 김익태 씨의 별세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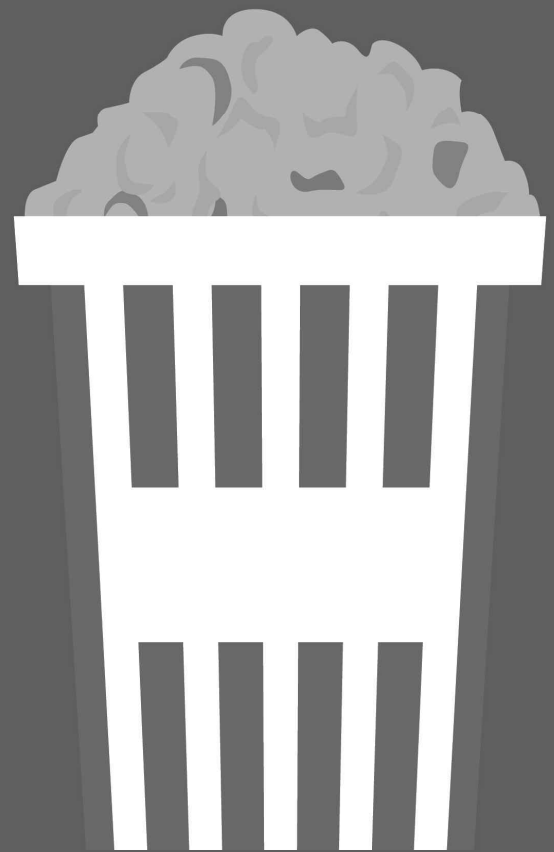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среда 16-4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